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상대편년을 둘러싼 문제

임상택 (서울대학교 박물관)

현재 한반도 신석기시대에 관한 한 편년연구에만 치중하던 과거의 연구경향을 벗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편년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은 편년문제가 여전히 한국신석기시대 연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논의하게 될 암사동으로 대표되는 중서부지역의 편년문제는 그 중에서도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화가 어렵고, 덜 진척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발표자 역시 약간의 사견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편년관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발표자가 중서부지역의 편년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향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시 하였던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 편년의 성립

중서부지역의 상대편년연구사는 이미 여러차례의 검토¹⁾가 행해진 바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재 편년틀의 단초와 문제를 동시에 제공한 중요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다. 주지하듯이 중서부지역 편년은 북한지역에서 궁산, 지탑리, 금탄리유적을 발굴조사하고 궁산문화 1-4기 편년틀을 마련하면서 출발하였다²⁾. 이때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전형적인 삼부위시문토기가 가장 이르고, 파상문과 종속구연문이 추가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한단계 늦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금탄리유적의 발굴은 궁산문화의 외연을 넓히고, 편년의 세분을 가능하게 했지만 최근 논자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금탄리문화층의 독립시기 설정 또는 기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³⁾.

1) 안승모, 1993, 「한강유역의 신석기문화」, 『한강유역사』

林尙澤, 1999, 「韓半島 中部地域 新石器時代 中期土器의 樣相」, 『先史와 古代』13, 韓國古代學會.

김장석, 양성혁, 2001,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용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韓國考古學報』45집.

2)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3) 김장석, 양성혁, 2001, 前揭書.

安承模, 2002, 「金灘里式 土器의 再檢討」, 『韓國新石器研究』, 第4號.